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Adolescents' Conflict,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Their Self-Concept

공인숙* · 이은주 · 이주리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아동전공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Kong, Insook* · Lee, Eunjuo · Lee, Julie

Dept. of Consumer·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the adolescents' self-concept, communication, and conflict with parents, and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conflict and their communic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onflict and the communication on their self-concept.

179 second graders of 3 middle schools and 182 6th graders of 2 elementary schools of East Jeonnam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The questionnaires for the communica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adolescents and the parents and the self-concept inventory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t-test, paired-t-test, one way ANOVA and Duncan analysis.

First, mother was better than father in the communication with the adolescent. The conflicts with the parents were as shown below in order; the homework, school record, sibling relationship, playing computer games, etc.. The adolescents' self-concept was above the median. Second, the adolescents' conflicts and communications with par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adolescents' self-concept according to the conflict with the parents. Fourth, the adolescents' self-identity was influenced by the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Their self-acceptance was highly influenced by the conflict and the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Their self-behavior was influenced by the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Key Words : adolescent, communication, conflict, self-concept

I.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심리적 격동기'라고 일컬어질 만큼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나타내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이전 시기보다 부모와의 대화가 힘들고, 세대 차이를 느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하기 쉽다(Barnes & Olson, 1982). 그런데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백미숙, 2000). 즉,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매개체이며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므로(백승미, 2003) 인간관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은 상이한 성과 세대로 구성 되어서 문화적인 갈등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성원간의 역할 차이에 의해서도 가족 집단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하겠다(신의정, 1995). 특히 우리나라 가족은 형태상으로는 산업 사회의 가족형태로 변화 했으면서도, 가부장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 때문에 가족 성원 간에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김양희, 1986).

또한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권위에 주로 따르는 아동기와는 달리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김수연, 정문자, 1997). 즉, 청소년기에 이르면 청소년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지며, 점점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 Corresponding author: Insook Kong
Tel: 061) 750-3675, Fax: 061) 750-3670
E-mail: iskong@sunchon.ac.kr

다(Berndt, 1979). 그러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의 독립과 자립에 반감을 가지게 되며 자신들의 영향력의 축소로 인해서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백미숙, 2000).

이에 따라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태도는 기존의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긴장관계로 전환되므로 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청소년과 부모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 부족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청소년과 부모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정신 건강을 도와주어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갈등 해결과 청소년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보겠다. 또한, 가정 내의 의사소통은 학교 교육과 함께 인간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정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의 기초를 습득하고,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성격의 핵심이 되는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김정희, 1987).

자아개념은 일생을 통해 계속적인 발달과정을 밟는 것(송인섭, 1990)이나, 청소년기 발달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청소년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자신을 발견하고 형성하는 정체성 대 정체 혼미의 단계를 겪기 때문이다(Erikson, 1968). 이 때 정체감 혼미를 겪으며, 자아개념 형성에 차질이 생기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격적 부작용을 겪게 되고, 일생을 방황하는 인간이 된다고 한다(김성운, 2001). 즉, 자아개념은 다양한 영역이나 구조를 포함하는 조직화된 정보체제로 묘사되며(Margolin & Niedenthal, 2000), 대체로 일정하여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문적 자아개념은 기존의 인지 능력 측정 점수보다도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더 잘 예측하고 있다(Gerardi, 2005). 또한 자아개념이 높은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김미성, 2001). 이처럼 청소년기는 자아개념 형성에서 중요한 시기이나, 청소년은 부모와 갈등을 겪기 쉬우며, 의사소통의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갈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어떠한지,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의 종류와 갈등의 정도를 알아보고, 갈등이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과 의사소통 양상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간의 관련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의사소통 및 자아개념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갈등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부모와의 갈등, 의사소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열정이 넘치고 성인의 권위에 반항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규정되어 왔다. 또한 현대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는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및 청소년기의 심리적·인지적 변화가 맞물려 갈등이 증가하므로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놓인다고 보고 있다(김태연, 장희숙, 1987). 즉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권위에 주로 따르는 아동기와는 달리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김수연, 정문자, 1997).

따라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영역과 갈등 정도를 구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Montemayor(1982)는 시간소요일지법(time-use methodology)을 개발하여 10학년 학생(평균 연령 15.2세)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한 결과, 청소년의 갈등은 대부분 학업, 집안일, 불순종, 일반적 짜증 등 일상적인 가족생활 영역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성이나 약물, 종교, 정치 등 보다 광범위하고 사회적인 생활 양식에 관한 갈등은 비교적 적었다. 또한 후속 연구(Montemayor, 1983)에서도 청소년의 경우 귀가시간과 가사일 돕기와 같은 가족생활 관련 영역의 갈등을 부모와 빈

번하게 겪는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 학업성과 관련된 갈등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즉 나은아(1995)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갈등을 연구한 결과, 학교성적, 일상생활, 용돈,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에서 갈등을 겪는 것을 밝혔다. 또한 김경숙(1987)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갈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미래, 청소년은 성역할, 학교생활, 가치관, 친구, 가정생활, 품행 및 성격, 여가생활 순으로 갈등을 자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 30쌍을 개별 면접한 결과,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은 주로 일상적인 가족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가족 내의 규칙 때문에 일어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기대 차이로 일어났다.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 학업 성취와 관련된 갈등이 가장 많았다(이주옥, 1993). 그 외에 중·고등학교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역할 기대를 연구(한남제, 1984)한 결과였는데, 학업성적, 가사조력, 귀가시간, 용돈사용, 교우관계, 옷차림새, 야간외출, 종교문제 등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의견충돌이 자주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주로 학업성과 관련된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있었다.

2.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말의 유래는 라틴어의 communis로 이는 공유 또는 공통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의사소통은 인간들의 정보, 신념, 의견, 태도, 사실, 생각 등을 공유 또는 공통화 하는 행동으로써, 인간 상호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의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김경신, 김오남, 1994)이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은 인성이나 행동발달 등에 관계되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청소년이 부모와 겪는 갈등이나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써 의사소통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조은경, 1992).

Barnes와 Olson(1982)은 의사소통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개방형)과 방해하는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문제형)으로 구분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 공감, 반영적 경청,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 등을 의미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모순된 메시지, 부정적인 발언이나 이중속박,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백승미, 2003).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이창숙(1987)은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친숙형, 성실형, 분석형, 타인지향으로 보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권위형, 회생형으로 보았다. 또한 이정우와 김규원(1989)은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선택과 전달요소를 고려하여 쌍방 차단형, 자녀 차단-어머니 개방형, 자녀 개방-어머니 차단형, 쌍방 개방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의 부모와의 절대적인 대화 시간의 부족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부모와의 올바르게 못한 갈등을 일으키고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적 발달 장애를 가져오며, 청소년이 올바르게 못한 사회화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다른 사회집단에 부적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화 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백승미, 2003).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 유형은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의사소통, 쌍방 개방형 의사소통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폐쇄적인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의사소통, 쌍방 차단형 의사소통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의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James가 1890년에 자아(ego), 또는 자기(self)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다양한 영역이나 구조를 포함하는 조직화된 정보체계(Margolin & Niedenthal, 2000)이므로, 자아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 즉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등이 넓은 의미의 자아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자아개념은 인지적 내용만이 아니라 감정적 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여러 국면을 갖고 있다(Higgins, 1987)는 것이다.

또한 자아개념은 일생을 통해 지속적인 발달과정을 밟는 것(송인섭, 1990)이므로 시간적으로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자아를 나타내기도 한다(Markus & Wurf, 1987). 즉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 자신의 역할수행 정도와 행동에 대한 의미있는 타자의 반응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며, 성장해감에 따라 복잡해진다. 이 때 의미있는 타자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부모, 교사, 친구 등이며, 이들과의 관계는 자아개념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박영호, 유영애, 2000). 그런데 이들 중 부모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하다.

우선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발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경주, 1989). 또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감정이 정화되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자신이 수용된다고 여기므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김양숙, 1995).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이경주, 1989)도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아개념이 높은 청소년의 부모는 청소년이 이해해야 할 명확한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지키게 하며, 설정된 한계 내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가족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경향이 높았다(국길숙, 2003).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지각되면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높게 나타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으로 지각되면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Maslow는 각 단계에서 욕구가 좌절되어 갈등이 생기면 건전한 자아 개념의 형성을 방해하여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갈등과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갈등과 자아개념 수준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노호경, 2002). 또한 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아수준이 낮으며, 가족 구성원이 원만하고 응집되어 있을 때 자아개념의 수용이 높아지고 갈등의 빈도도 낮아졌다(한상일, 1997). 이상의 연구에서 갈등은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갈등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의 수준이 낮게 형성되고 갈등이 낮을수록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동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3개교 2학년 남녀 179명과 초등학교 2개교 6학년 남녀 182명 총 361명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으로 선정할 이유는 청소년의 범주가 9~24세이고, 특히 12~15세에 사춘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188 (52.10)	학년	초등학교6학년	182 (50.40)
	여	173 (47.90)		중학교2학년	179 (49.60)
아버지 연령	40세미만	30 (8.30)	어머니 연령	40세미만	139 (38.50)
	40-44세	221 (61.20)		40-44세	195 (54.00)
	45-49세	91 (25.20)		45-49세	20 (5.50)
	50세이상	19 (5.30)		50세이상	7 (2.00)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8 (5.00)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17 (4.70)
	고등학교 졸업	169 (46.80)		고등학교 졸업	237 (65.70)
	전문대학 졸업	14 (3.90)		전문대학 졸업	16 (4.40)
	대학교 졸업 이상	160 (44.30)		대학교 졸업이상	91 (25.20)
아버지 직업	무직	5 (1.40)	어머니 직업	무직	219 (60.70)
	상업·서비스직	47 (13.00)		상업·서비스직	55 (15.20)
	근로직	49 (13.60)		근로직	7 (1.90)
	사무직	236 (65.40)		사무직	49 (13.60)
	전문및관리직	24 (6.60)		전문및관리직	31 (8.60)
계	361 (100.0)	계	361 (100.0)		

조사 대상은 남학생이 52.1%, 여학생이 47.9%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많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이 50.4%이고 중학교 2학년이 49.6%로 거의 비슷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의 연령은 40~44세가 61.2%로 가장 많았고, 40세 미만이 8.3%이고 45~49세가 25.2%이고 50세 이상이 5.3%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6.8%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44.3%이고 중학교 졸업 이하가 5%였고 전문대학 졸업이 3.9%로 나타났는데 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65.4%로 가장 많았고, 근로직이 13.6%이고 상업 및 서비스직이 13.0%이고 전문 및 관리직이 6.6%로 나타났고 무직이 1.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40~44세가 54.5%로 가장 많았고, 40세 미만이 38.5%이고 45~49세가 5.5%이고 50세 이상이 2.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6.8%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25.2%로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이하가 4.7%로 나타났고 전문대학 졸업이 4.4%로 나타났는데 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60.7%로 가장 많았고 상업 및 서비스직이 15.2%, 사무직이 13.6%로 나타났고 전문 및 관리직이 8.6%이고 근로직이 1.9%로 나타났다.

2. 질문지의 구성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apini와 Seby(1989)의 문제항목조사지(Issues Checklist: IC)를 기본으로, 김수연과 정문자(1997), 백미숙(2000), 정경아(1993)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문제항목조사지는 가족 갈등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4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갈등적 문제를 망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에 부적합한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14영역과, 근래에 갈등 영역으로 부각된 PC 게임을 추가하여 총 15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타 문항을 개방형으로 추가하여 다양한 갈등 영역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측정 도구는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해 “아주 조용함”은 1점, “비교적 조용함”은 2점, “조용할 때와 거칠 때가 반반임”은 3점, “비교적 거침”은 4점, “아주 거침”은 5점을 주었

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등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이다.

척도는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20문항,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부모에게 서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으며,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하는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와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으며,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는 청소년 자녀가 의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표현을 잘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면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해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잘 모르겠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했고,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에 대해서는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 “그렇지 않다”에 4점, “잘 모르겠다”에 3점, “그렇다”에 2점, “매우 그렇다”에 1점을 부여해서 개방형과 문제형을 합산해 전체 점수로 계산하였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며 원활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84,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83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정원식(1968)이 제작 표준화한 자아개념 검사 중 자아정체감, 자아수용, 자아 행동의 30문항만을 이용하였다. 각 3개의 하위척도는 각각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개념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다.

자아 정체감이란 한 개인이 현재의 자기를 어떠한 존재로 지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자기를 가치 있고 존

중 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개인의 정체감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자아의 인지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수용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로써 개인의 자기만족 혹은 자기 수용 정도를 반영해 주는 점수이다. 즉, 자아의 정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행동이란 한 개인이 행동하는 방식이나 실제로 행동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이 점수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며 그가 취하는 행동방식에 얼마나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생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낮은 점수의 사람은 그 개인의 행동이 자기의 환경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박영호, 유영애, 2001).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조사 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라남도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남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5일과 6일에 걸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동부권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 3개교와 초등학교 2개교의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29일부터 2004년 4월 2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용 질문지는 연구자와 보조자가 직접 배부하여 질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작성하게 하였으며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학생들의 응시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배부된 400부의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39부를 제외하고 중학생 179명, 초등학생 182명 총 361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통해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상관관계, 회귀분석, t-test, 대응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추후검증으로 Duncan 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연구문제1.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의사소통, 자아개념의 정도는 어떠한가?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전반적 경향은 <표 2>에서와 같았다. 즉 청소년 자녀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값의 평균은 62.72였으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값의 평균은 67.10 이었다. 이는 중간 값인 60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 그저 그런 정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부모 중 누구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가정 내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나, <표 3>에서와 같이 차이가 없었다. 즉 청소년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어머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의 종류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갈등 영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즉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점수의 평균은 35.26이었고 표준편차는 7.78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하는데, 가능한 점수 범위(15~75)를 고려하면, 중간값은

<표 2>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paired t-test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수준	62.72	12.10	-7.4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	67.10	11.56	

***p<.001 점수분포 : 20~100

<표 3> 성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paired t-test
남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수준	64.09	11.09	-4.58***
남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	66.72	10.66	
여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수준	63.33	13.14	-5.88***
여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	67.52	12.48	

***p<.001 점수분포 : 20~100

<표 4>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갈등 (N=361)

갈등 영역	평균	표준편차
숙제나 학교성적	3.02	1.08
형제·자매 관계	2.92	1.15
PC 게임	2.81	1.19
내 방 청소	2.59	1.06
TV시청, 음악 청취	2.51	1.08
행동, 성격 문제	2.44	1.01
주말 시간 사용	2.44	1.01
귀가시간	2.38	.99
취침시간, 기상시간	2.32	1.02
용돈 사용	2.09	.93
집안일 조력, 참여	2.08	.94
웃차림, 머리 모양	1.96	.95
건강, 청결	1.91	.96
친구와의 전화 통화	1.91	.98
친구 사귀기	1.89	.95
총 갈등	35.26	7.78

점수분포: 1~5점, 총갈등은 15~75

45점이므로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은 중간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갈등 영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숙제나 학교성적, 형제·자매 관계, PC 게임, 방 청소, TV 보거나 음악 듣는 것과 같은 영역에서 부모와 갈등을 보였다. 즉 갈등 영역을 순위별로 보면 숙제나 학교성적 영역이 중간값인 3점보다 약간 높아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형제·자매 관계, PC 게임, 내방 청소, TV 시청이나 음악 청취 등이 2.5점 이상이었다.

개방형 문항으로 기타 갈등을 조사한 결과는 학원 결석하는 것 12명, 편식하는 것 9명, 만화책 보는 것 7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 학원 결석하는 것과 만화책 보는 것도 학교 성적과 관련된 영역의 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평균은 35.32이고 자아수용성의 평균은 32.57이고 자아행동성 평균은 33.44로 나타나 자아개념은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의 세 가지 측면 중에는 자아 정체감이 자아수용과 자아행동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자아개념 점수는 150점이 최대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표 5> 청소년의 자아개념

	평균	표준편차
자아정체감	35.32	5.30
자아수용	32.57	5.09
자아행동	33.44	4.78
자아개념	100.35	13.00

점수분포: 10~50, 자아개념 30~150

<표 6> 청소년의 성, 학년 별 자아개념의 차이

변수	N	자아정체감	자아수용	자아행동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	188	35.38	32.82	32.49
여	173	35.27	32.30	32.40
t		.19	.97	.18
학년				
초등학생	182	35.48	33.30	32.90
중학생	179	35.17	31.84	31.98
t		.55	2.74	1.83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자아개념의 중간값은 90점으로 청소년의 자아 개념값인 100.35는 중간값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성별이나 학년과 같은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검증한 결과, <표 6 >에서와 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갈등 정도는 어떠한가?

<표 7>에서와 같이 청소년이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정도는 .73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어느 한쪽 부모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경우 다른 쪽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갈등 정도는 아버지와는 -.49, 어머니와는 -.41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김수연과 정문자(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되는 경우 갈등 정도는 비교적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갈등의 관계

	아버지의 의사소통	어머니의 의사소통	총 갈등
아버지의 의사소통	1		
어머니의 의사소통	.73***	1	
총 갈등	-.49***	-.41***	1

***p<.001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부모와의 갈등, 의사소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조사대상자의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자아개념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전체 361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와의 의사

소통 정도를 평균±표준편차×3을 기준으로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평균+ 1×표준편차 이상인 집단을 의사소통 수준이 상인 집단으로, 평균- 1×표준편차 이하인 집단을 의사소통 수준이 하인 집단으로, 나머지를 중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표 8>에 의하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상인 경우에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자아 수용, 자아 행동 값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중이하인 경우보다 높았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중인 경우의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자아 수용, 자아 행동 값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하인 경우보다 높았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김정선(1996), Felson과 Zielinski(1989)의 연구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았다.

<표 9>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상인 경우에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자아 수용, 자아 행동 값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중이하인 경우보

다 높았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중인 경우의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자아 수용, 자아 행동 값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하인 경우보다 높았다.

이것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양숙(1995), 박영호와 유영애(2001), 이진용(1990)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어머니와 청소년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빈도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 청소년간의 갈등 정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3집단으로 분류한 후, 갈등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표 10>에 의하면 갈등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었다. 갈등이 상인 경우의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값은 갈등이 중과 하인 경우보다 낮았다. 갈등이 상인 경우의 청소년의 자아 수용 값은 갈등이 중인 경우보다 낮았다. 갈등이 중인 경우의 청소년의 자아 수용 값은 갈등이 하인 경우의 청소년의 자아 수용 값보다 낮았다. 갈등이 상과 중인 청소년의 자아 행동 값은 갈등이 하인 경우의 행동 값보다 낮았다. 이것은 갈등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노호경(2002), 양총재(198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아개념 값이 낮으며, 갈등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값은 낮아지는 것이다.

<표 8> 청소년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N	자아정체감	자아수용	자아행동
		평균	평균	평균
상	121	37.74 c	35.26 c	34.69 c
중	131	35.48 b	32.44 b	32.14 b
하	109	32.47 a	29.75 a	30.33 a
F		33.47***	41.00***	27.91***

***P<.001

<표 9>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N	자아정체감	자아수용	자아행동
		평균	평균	평균
상	112	38.01 c	35.65 c	34.79 c
중	139	35.29 b	32.22 b	32.22 b
하	110	32.65 a	29.88 a	30.35 a
F		33.49***	44.97***	27.85***

***P<.001

<표 10>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N	자아정체감	자아수용	자아행동
		평균	평균	평균
상	151	33.65 a	31.03 a	31.45 a
중	114	35.95 b	33.08 b	32.55 a
하	96	37.23 b	34.67 c	34.13 b
F		15.69***	15.08***	9.68***

***P<.001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았다.

청소년의 자아개념 중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에는, 아버지의 의사소통($\beta=.24, P<.001$)과 어머니의 의사소통($\beta=.20,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21.4%를 설명하였다. 그에 비해 갈등

〈표 11〉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정체감	자아수용	자아행동	총자아
	B(β)	B(β)	B(β)	B(β)
아버지의 의사소통	.11 (.24)***	.10 (.24)***	.09 (.22)**	.29 (.27)***
어머니의 의사소통	.09 (.20)**	.11 (.25)***	.09 (.22)**	.30 (.26)***
갈등	-.91 (-.09)	-1.41 (-.44)**	-.37 (-.04)	-2.69 (-.11)*
R2	0.214	0.293	0.187	0.312
상수	24.47	22.02	21.63	68.12

*P<.05 **P<.01 ***P<.001

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수록 청소년은 자신을 쓸모 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 수용에는 갈등($\beta=-.44$, $P<.01$), 어머니의 의사소통($\beta=.25$, $P<.001$), 아버지의 의사소통($\beta=.24$, $P<.001$)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29.3%를 설명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갈등을 적게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수록 자신을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의사소통과 갈등의 회귀분석 결과, 청소년의 자아행동은 아버지의 의사소통($\beta=.22$, $P<.001$)과 어머니의 의사소통($\beta=.22$,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18.7%를 설명하였다. 반면에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청소년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수록 청소년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전체적인 자아개념은 아버지의 의사소통($\beta=.27$, $P<.001$), 어머니의 의사소통($\beta=.26$, $P<.001$), 갈등($\beta=-.11$, $P<.05$) 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3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청소년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수록, 갈등을 적게 겪을수록 청소년의 전체적인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상대적 영향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혜숙(1998)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중 어느 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통적으로 자아개념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수준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갈등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에서 차이가 있는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청소년과 부모간의 관계 증진 및 청소년의 자아개념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부모와 중간 정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평상시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약간 더 잘 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나 진로 결정(신은영, 김누리, 2004) 등의 여러 측면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요구된다는 점과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부모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저 그런 정도의 의사소통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둘째, 청소년의 갈등 수준은 전체적으로는 중간 수준보다 낮아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규정하며 청소년이 부모와 심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통념과는 어긋난다. 이는 김수연과 정문자(1997), 나은아(1995), 백미숙(2000),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5), Montemayor(198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은 부모와 갈등을 심각하게 지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가 스트레스가 많고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무난히 옮겨가는 편(정옥분, 정순화, 2000)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숙제나 학교성적에 대한 갈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주옥(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인 성취 지향

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즘 각 가정에 많이 보급된 PC는 학습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청소년 자녀가 PC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 청소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PC 게임의 영향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순형 외, 1999; Cassell & Jenkins, 1998; Greenfield, 1998)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윤영민, 2000; 이숙, 나운주, 2004)가 혼재해 있는 실정이다. 비록 PC게임의 영향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시점이기기는 하나, 이미 PC 게임이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공인숙, 2002; 백지숙, 2005; 이광성, 1998) 시점이므로, 청소년의 올바르게 적절한 PC 게임 사용을 위한 지도 방법을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길숙(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인성형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최소화가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중요하다는(이동원, 2005)점에서 중간 정도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가 성인기의 진로에 대한 준비와 선택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성숙한 진로 선택과도 정적 상관을 보인다(신은영, 김누리, 2004)는 것도 청소년의 자아개념 향상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갈등을 적게 보였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가치관과 견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용이해지므로 그들 간의 갈등도 적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모와의 갈등은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이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연결된다는 점과 자아개념이 일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면 자아 정체감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는 반면 갈등과는 관련이 없었다. 자아 수용은 갈등의 영향이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도 나타났다. 자아 행동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는 반면 갈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아개념에서 부모와의 갈등보다는 의사소통의 영향이 더 높으며, 부모 모두의 의사소통의 영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 못지않게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부모교육에서 주 양육자로 어머니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추후에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갈등과 의사소통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전남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청소년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갈등 정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실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이나 갈등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제어 : 청소년, 의사소통, 갈등, 자아개념

참 고 문 헌

- 공인숙 (2002). 아동의 전자게임 사용 실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63-71.
- 국길숙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1987).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논문집 15, 9-14.
- 김미성 (2001). 시설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의 효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윤 (2002). 중학생의 자아개념유형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정문자 (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 - 192.
- 김양숙 (1995).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의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시 거주 부인의 표본 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 (1996).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간 의사소통과 자

- 이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 장휘숙 (1987).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나은아 (1995).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와 청소년의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호경 (2002). 교회학교 청소년의 갈등과 자아개념의 관계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 유영애 (200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교육이론과실천*, 11(2), 341-373.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백미숙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승미 (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 (2005). 인터넷 게임동기 유형에 따른 대학 적용과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학회지*, 26(1), 31-45.
- 송인섭 (1990).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신은영, 김누리 (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아동교육*, 13(2), 185-199.
- 신의정 (1995).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성별이 중학생의 갈등표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총재 (1982). 심리적 갈등이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민 (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 2차 정책포럼,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의 문제와 대책.
- 이경주 (1989).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성 (1998). 청소년의 전자오락실 이용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26, 99-114.
- 이동원 (2005).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 *한국공인행정학회보*, 19, 357-384.
- 이숙, 남윤주(2004).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한가정학회지*, 42(3), 1 - 16.
- 이순형, 서봉연, 이소은, 성미영 (1999). 컴퓨터 게임이 아동의 공간 기술과 단기 기억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0(3), 293-306.
- 이주옥 (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용 (1990). 어머니 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숙 (1987).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199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1993). 사춘기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정순화 (2000).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정원식 (1968). 자아개념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아 테스트센터.
- 조은경 (1992).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 거리·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5).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상일 (1997). 부모자녀 갈등관리와 자아개념의 정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L, Olson, D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MA: University of Minnesota.
- Berndt, T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61-767.
- Cassell, J, Jenkins, H (1998). *From Barbie to Mortal Kombat: gender and computer games*. Cambridge, MA: MIT Press.
-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elson, RB, Zielinski, MA (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 Gerardi, S (2005). Self-concept of ability as a predictor of academic success among urban technical college student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2, 295-300.
- Greenfield, PM (1998). The cultural evolution of IQ. In U. Neisser(Ed.), *The rising curve: long-term gain in IQ and related measures*(pp. 81-12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ggins, E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3(4), 319-340.
- Margolin, JB, Niedenthal, PM (2000). Manipulating self-complexity with communication role assignment: evidence for the flexibility of self-concept structure. *J.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 424-444.
- Markus, H, Wurf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ontemayo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 of Early Adolescence*, 3, 83 - 103.
- Papini, DR, Sebbey, RA (1989). Grade, pubertal status, and gender-related variations in conflictual issues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24(96), 977-987.

(2005. 08. 29 접수; 2005. 10. 20 채택)